

## 농업·어업 '한계상황'

### 면세유·비료·사료값 1년새 2배 폭등 농기계 반납·조업 포기 사태 줄이어

면세유와 비료, 사료 등의 가격이 지난 해에 비해 2배 이상 치솟는 등 생산비가 크게 올라 농·어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급기야 일부 농·어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서 항·포구마다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즐비하고, 농산물 출하 포기·농기계 반납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비 급등에 따라 농업을 포기하거나 작목 전환 과정에서 농가의 도산도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농민회, 수협 등에 따르면 16일 현재 어업용 면세유(경유 기준)는 한 드럼(200ℓ)당 22만원으로 지난 해 7월 말 10만1천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 농업을 면세유 가격(경유 기준)은 1ℓ

당 1천316원으로, 지난 해 7월 말 653원 보다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지난 1월 1일의 811원과 비교해도 올해 들어서만 62%나 올랐다.

비료 값은 6개월 만에 두 배 넘게 폭등했다. 지난 해말 8천100원대였던 20kg들이 화학비료 한 포대의 평균 값은 현재 1만7천500원 수준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낙농가에게 사료 값 인상은 직격탄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53개 업체(농협사료 제외), 73개 공장에서 생산된 평균 배합사료 가격은 1kg당 463원으로 지난 해 5월의 347원보다 33%나 급등했다.

농가들에 따르면 사료 값이 33% 오르면 생산비는 18~20% 가량 오르지만 미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공공물가 인상 '도미노'

### 전기·도시가스 요금 8월부터 올려 시내버스·택시료 등도 상승 불가피

정부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연내 인상하기로 하는 등 공공요금 올리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특히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데다 전기·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를 경우 시내버스, 택시, 상수도 등 공공 부문의 원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가계를 더욱 옥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산업용은 50%, 가정용은 30% 올리기로 하고, 이를 8월과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 중으로 전기요금을 5% 가량 올리되 산업용 요금을 위주로 인상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확정

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방침이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그에 맞게 물가 관리정책을 펴왔으나 정부가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구체화함에 따라 이에 따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광주 시내버스의 경우 유가가 폭등으로 무려 100억원의 시 재정이 투입됐다. 시는 유가 인상 등 악재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 형편상 더 이상의 재원 투입이 불가능해져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인상 추세를 감안할 경우 인상폭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수도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상수도 본부는 "당 생산

원가가 602원임에도 528원에 물을 공급하고 있어 누적적자가 218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올해 말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LPG 가격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체도 요금 인상을 광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업체는 현재형 2km당 1800원인 기본요금을 2천500원으로 38%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전남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6년 4월 요금을 11% 올린 도내 택시업계는 올해 유가 폭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 시도 보다 먼저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지자체들의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불가피하게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정부, 日 외교 압박

### 아세안안보포럼 외교장관회담 제안 거절

정부가 오는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갖자는 일본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정부는 이 포럼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을 전체회의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6면>

외교 소식통은 17일 "최근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계획이 없다'고 답신을 보냈다"면서 "한일 양자회담이 열리는 것을 양측이 합의했다."

정부는 통상 다자회담이 열리는 계기에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들과 예외없이 양자회담을 해왔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ARF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ARF는 역내 주요 안보이슈를 다루는 회담으로 의제 중에서 지역정세를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면서 "금강산 총격사건은 지역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식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중국 관광객 남도음식 체험

중국인 관광객들이 17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남도음식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요리를 배우고 있다. 광주시가 주최한 행사에는 한·중·일 3개국 400여명이 참가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 태풍 '갈매기' 북상... 주말부터 영향

올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제7호 태풍 '갈매기'(KALMAEGDI)가 북상하면서 주말부터 간접 영향을 주기 시작해 휴일인 20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오후 3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49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갈매기'는 17일 오후 3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5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약 13km로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

중심기압 98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 26m/s(94km/h)로, 강도는 '중'이며 크기는 '소형' 태풍인 '갈매기'는 오는 19일 오후 3시께 제주도 서귀포시 남서쪽 약 51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주말인 19일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휴일인 20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영향권에 들기 전인 18일에도 전남 동부 남해안에서는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강평기기자 kps@kwangju.co.kr

유명인사 55인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새로운 시작은 남부  
전남과학대학

群鷄一鶴  
DYNASTY  
2008년 10월 10일 ~ 10월 15일

1. 10월 10일 (토) 10:00 ~ 10:00  
2. 10월 11일 (일) 10:00 ~ 10:00  
3. 10월 12일 (월) 10:00 ~ 10:00  
4. 10월 13일 (화) 10:00 ~ 10:00  
5. 10월 14일 (수) 10:00 ~ 10:00  
6. 10월 15일 (목) 10:00 ~ 10:00